

동자복 키가 286cm?... "훨씬 큰 것 같은데"

안내판과 각종 자료에 표시된 신장, 실제와 다르다는 지적 제기

데스크승인 2014.03.06 김현중 기자 | tazan@jejunews.com



각종 문화재 관련 자료에 기록된 동자복의 신장이 실제와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동자복을 설명하는 문화재 안내판 등에는 '신장 286cm'라고 기록된 가운데 실제로 동자복을 경험한 도민이나 관광객들은 육안으로 보더라도 이 수치보다는 훨씬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시민은 "문화재 안내판에는 동자복의 얼굴 길이가 161cm이고 신장은 286cm라고 표기돼 있는데 얼핏 봐도 키가 3m를 훌쩍 넘고도 남을 것 같다. 얼굴 길이보다 몸통의 길이가 세배는 족히 넘어 보이는 점을 고려해도 동자복의 신장은 잘못 측정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문화재 안내판과 각종 자료에 '신장 273cm, 얼굴 길이 135cm'로 표시된 서자복과 비교할 때 동자복이 훨씬 크다는 점에서도 동자복의 신장은 실제와 다르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본보가 동자복의 신장을 간이 측정한 결과 앞·뒷면 오차를 감안해도 대략 4m에 가까웠다. 동자복의 신장에 대한 정밀 측정을 통해 오류여부를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동자복의 신장을 정밀 측정해 오류가 있을 경우 바로잡겠다"며 "서자복과 동자복에 대한 안내문구도 차별성이 없어 바람직하게 고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중 기자 tazan@jejunews.com

© 제주신보(<http://www.jeju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